



心實愛世
攝信慈度

본회는 동문상호간의 우의증진과 모교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1976. 10. 15. 등록번호 라-2143호·월간·비매품)

東友會報

1988年 (檀紀 4321年) 2月 29日 第 130號 [1]

발행인 鄭在哲
편집인 申益炫
인쇄인 崔在旭

東國大學校 總同窓會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2-18
성화빌딩 12층
전화: 733-3993 (代)
733-3991, 3992, 3993

우편대체: 012328-31-525669
은행지로번호 7500891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87학년도 학위수여식

1987학년도 학위수여식이 지난 26일 (경주캠퍼스 27일) 오전11시 모교 대운동장 (경주 문부관)에서 거행되었다.

李智冠총장을 비롯, 黃軫經이사장, 鄭在哲본회 회장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축사를 통해 鄭회장은 『東國의 精神을 깊이 자각하여 主人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사회에 이바지 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 좌는 鄭회장이 총학생장 지석규君에게 공로패를 전달하는 장면)



진흥상호신용금고는 금고업계 최대의 자본규모, 유일한 상장회사입니다.



대출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

- 진흥상호신용금고는 항상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가계 및 사업자금이 필요하신 고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대출에 문턱이 없는 진흥상호신용금고를 이용하시면 신속·간편하게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업대출
 - 일반대출
 - 부금대출
 - 부금금부
- 어음할인
신용보증서 대출
가계자금신용대출

여유자금을 가지고 망설이십니까 ?

- 모두가 믿고 찾는 진흥상호신용금고를 이용해 주십시오.
- 진흥상호신용금고는 업계 최대의 자본규모로 업계 유일한 상장회사입니다.
- 신용부금(정기적금식) 연 14%
- 보통부금예수금(저축예금식) 하루 연 8%
- 정기부금예수금(정기예금식) 15.07%
- 세금우대 종합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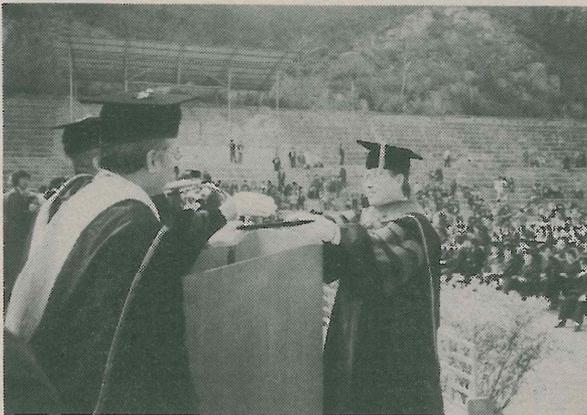
모두가 믿고 찾는 번영의 터전
주식회사 **진흥상호신용금고**



본 점 : 778-6611 (한국은행앞)
영동지점 : 545-3653 (강남구청앞)

새 동문 3천4백53명 탄생

전체 수석졸업에 金敬玉씨



1987학년도 학위수여식이 지난26일 모교운동장에서 거행되었다.

1987학년도 학위수여식이 지난 26일(경주캠퍼스 27일) 오전 11시 모교 운동장(경주 문무관)에서 거행되었다.

李智冠총장을 비롯, 黃彰經이 사장, 鄭在哲본회회장등 각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삼기의 데넷 학사보고, 학위수여 및 증장식사, 이사장고사, 동창회장축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졸업식사를 통해 李총장은「그동안 연마한 학문적 깊이를 토대로 인류의 보편적인 심과 정의감으로 민족의 진운을 이끌어 나아가 달라」고 말했다며 鄭회장은 축사에서「동국의 정신을 깊이 자각하고 주인으로서의 긍지로 사회에 이바지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번 학위수여자는 학사 3천4백53명(경주 1천1백14명포함), 석사 2백명, 박사 23명등 총 3천6백76명으로 전체수석은 평점 4.5점 단점에서 4.37을 받은 金敬玉(불교대 불교학과) 씨가, 경주캠퍼스 수석은 평점 4.27의 김경동(법경대무역학과)

군이 각각 차지했다.

美北加州동문회 새 임원진 선출

美北加州동문회는 최근 정기총회에서 새 임원을 선출하고 회발전에 관한 장기적인 논의와 함께 우의를 다졌다.

또한 임원들은 지난26일 본회 사무국을 내방, 회비 3백\$을 전달하였으며 서울의 모교졸업식에도 참석했다.

이번에 개편된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韓陽洙(66국문)

▲부회장=金義中(72상학) 하현원

▲총무=李석우

▲재무=강관수

「동문작품전」가져 경주미술과동문회

경주캠퍼스 미술학과 출신들의 모임인 미술학과 동문회는 지난25일부터 오는 1일까지 대구 태백화랑에서 「동국대 동문작품전」을 가진다.

작품교류를 통한 선후배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올해 두 번째를 맞는 이번 작품전에는 鄭炳國(83년卒)의 「龍華世界」등 14명의 50호~4백호 크기의 작품 25점이 선보인다.

東國을 아십니까?

「알고서 사랑하고 사랑하므로서 안다」(知而愛, 愛而知)라는 예말이 있듯이 東國愛는 동문여러분의母校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솟아납니다. 本報에서는 동문으로서 꼭 알아두어야 할 母校의 이모저모를 소개하면서 참여하는 東國人像의 집합을 꾀해보고자합니다.



나.象徵獸: 코끼리

모교의 象徵獸는 코끼리이다. 부처님의 탄생설화 가운데 그 생모 마야부인의胎夢인 흰코끼리의 사연에서 유래했다. 「南」코끼리 또는 「東岳」의 코끼리로 불리우는 모교의 코끼리는 智慧와 福徳을 갖춘 용맹의 짐승이다.

다.象徵花: 연꽃

모교의 상징화는 연꽃이다. 진흙에서 자라되 물결이 없고, 해맑은 여울에 씻기어도 오염하지 않고, 속은 통해도 겉이 깨끗하고, 남몰도 가지도 지지않고 내물은 멀수록 조출하고 깨끗하며 의젓하게 꽃피어 열매를 맺어 주고두고 바라보게될뿐 함부로 매만져 질수 없는 군자다운 꽃이 연꽃이다. 따라서 「處染常淨」(물물에 처하여도 항상 조출하다)으로 불리운다.

<3>東國의 象徵

가.口號: 勇猛精進

모교의 구호는 「勇猛精進」이다. 씩씩하게 한 마음으로 즐기게 나아가겠다는 뜻이다. 부서질 줄 모르는 金剛力과 물러심을 모르는 陸戰無退의 정신으로 군세게, 보람차게 싸워 이기는 明朝敢闘의 氣象을 담고자하는 뜻에서 비롯됐다.

惠門會 정기총회 新年모임 겸해

惠門會(회장=金定基·48문학)는 지난달 16일 중화동 「청기와」에서 정기총회 및 신년모임을 가졌다.

지난 1년간의 會활동을 정리, 반성하고 더욱 정진하는지회로서의 면모를 다짐한 이날 행사에서 신년계획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제14대 任員 추가임용 朴泳旭 동문등 5명 理事로

대학교 267-8141
자택: 강남구 삼성동 73-545-1896

친목다짐한 定總 부산東農會

부산東農會는 지난 1일 정기총회를 갖고 신입총무에 曹基鉉(72농학) 동문을 선출하는 등 회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在釜 농학과출신들의 모임으로 근10여년간 알찬 친목을 다져온 동회는 또한 이번 모임에서 축협소 8두를 공동매입경남 거제도에서 사육을 결의하기도 하였다.



朴 泳 旭 이사



沈 昌 燮 이사



李 存 立 이사



林 英 正 이사



池 洙 龜 이사

본회는 제14대 임원진에 沈昌燮(61법학) 동문등 5명을 理事로 추가임용했다. 새로 이 사직을 맡아 본회의 발전에 기여할 동문들 명단 및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沈昌燮(61법학)=(株)환강기업 대표

직장: 전북 익산군 황등면 황

동리 54-3087, 53-3087

자택: 서초구 서초동 1686-4

금호APT 나동 312호 590-3132

▲朴泳旭(61법학) =대륜유조

사장

직장: 대륜유조 757-5552,

전주 82-3100

자택: 전주시 진북동 동양A

PT F.동 202호 4-6177

▲李在立(62경제) =우주빌딩

대표

직장: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653-73 793-6676, 793-0933

▲池洙龜(63경제) =고려도요

대표

직장: 경기도 이천군 신둔면

수평리409

자택: 마포구 서교동477-4

323-4740

▲林英正(65사학) =모교 국

사교육과 교수, 동대신문사주간

직장: 중구 필동 4가 동국

訂 正

지난번 제작배포된 임원수첩에 잘못 기재되었거나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같이 바로 잡습니다.

▲金龍模(59경제)

P. 6 莫→模

▲朴鍾在(59경제)

P. 51 관광 교육원장→전산

조사실장

▲洪斗杓(60법학)

P. 53 濟州地廳→청주지검

▲柳泓錫(61국문)

P. 116洪→洪65법학→61국문

사무실전화: 관주33-6302

자택전화: 관주33-0802

▲姜秉國(68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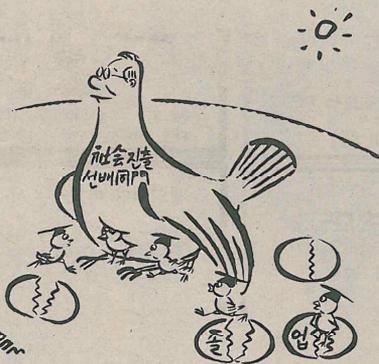
P. 92 사업→세교산업 대표

사무실전화: (0343)52-8711

▲鄭暎喆(80경원)

P. 9 鄭暎→鄭暎喆

東友漫評 鄭雲耕



따뜻하게 감싸주자

歷史의 전환점에서 先驅的 역할수행

鄭在哲 회장 卒業祝辭



鄭在哲 회장

존경하는 高僧大德 黃軫經이 사장님, 李智冠총장님, 그리고내외귀빈여러분.

오늘이 영광스러운 졸업식전에 참석하여 졸업생여러분의 밝고 희망찬 모습을 대하게된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그간 학업에 정진한 보람으로 오늘의 영예를 차지하게된 졸업생여러분과 박사, 석사의 학위를받으시는 분들에게 충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이 있기까지 훌륭한 가르침을 주신 모교의총장님을 비롯한 교수및 직원여러분의 노고와 그동안 아낌없이 뒷바침하여 주신 학부모님들의 정성에 주신 학부모님들의 정성에 주신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최만에 한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전통깊은 민족의 사학인 東國大學校에서 갈고 닦은 지혜와 자비의 東國精神을 바탕으로 사회의 일원으로서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해야 하는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在學中이었던 지난 수년간이 격심한 변동의 시기였듯이 여러분앞에 펼쳐질 이 사회의 현실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험하고 어려운 시련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社會人으로서 누구와 경쟁해도 뒤지지않

겠다는 東國人의 긍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이 모든 시련을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전체동문을 대표하는 본인은 어느 때보다도 믿음직한 후배여러분에게 뜨거

희생과 봉사로 母校愛 심는 同門隊야 民族精神文化의 주인으로서 東國精神 드높이길

운 사람을 가지고 다음과같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東國의 정신은 민족정신문화의 뿌리이며 주인임을 명심하여 주어야 하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내가 주인이라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매사에 솔선수범, 앞장서는 동문이 되어 주

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사회는 지금 민주화의 대물결이 각분야에서 도도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아평화적 정부이양을 이룩하였고국회의원선거등 각종 민주적 절차가 우리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동국인은 역사의 전환점에서 자기회생과 봉사로서 주체적 역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계인류의 대제전인 올림픽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나면 우리 역사에 일찌기 없

이 모교가 영광의 1백년사를 바라보면서 올해도 여러 단과대학의 신설및 개편, 모교주변의 대지확장 그리고 경주캠퍼스의 의대부속병원 신축등 명실공히 민족사학으로서의 웅장한 사태를 크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크나큰 발전의 주인공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여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겠읍니다. 진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졸업은 學業에서 떠나는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며 전보다 더한 努力을 기울여야한다는것을 명심하고 자랑

스런 東國大學校동문의 자격으로서 모교와 사회의 발전을위하여 더욱 분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부처님의 加護아래여러분의 앞날에 영광과 번영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88년 2월 26일

萬里長天을 날으는 大鳳의 패기로 社會에 첫발

李智冠 총장 卒業式辭

민족最後의 책임자로 의연하고 우뚝하게 서야 世界史의 흐름을 선도하는 主役으로

軫經이사장님과 여러 임원님, 동창회장님을 비롯한 동문여러분, 역대 전임총장님, 각기관장



李智冠 총장

본인은 먼저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이 분교에 입학한 이후 지금까지 숭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족의 동량으로서 새롭게 출발하는 능률한 모습을 보게 되니 더욱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군들의 졸업과 함께 앞날을 축하하고 격려해주시기 위하여 公私多忙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자리에 참석하여주신 黃

님 그리고 학부모및 내외귀빈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는바입니다.

진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人類의 기원 이래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변천과 발전의 역사과정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當代의 지도자는 교육의 최고과정을 통해 학문을 연구하였고 그 학문적 깊이를

토대로 하여 국가및 인류사회에 적극적으로 봉사할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이것 일관적인 경우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인간이 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깊은 회의와 사색에 잠기면서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라고 수없이 생각하여 왔지만 모든 사람을 충족시켜줄수 있는 명쾌한 해답을 얻지 못하였읍니다. 그것은 우리의 다양한 의식구조를 획일적으로 立命할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때, 다가오는 2천년대의 주역으로서 민족의 進運과 世界史의 흐름을 선도해야 할 諸君들에게 負荷된 임무는 참으로 무겁다고 아니할수 없읍니다.

졸업생 여러분! 본인은 오늘 諸君들이 일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까 하는 간절한 생각으로 몇 마디의 당부를 하고자합니다.

첫째는, 뿌리에 대한 깊은 관심과 긍지를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짓밟히는 한줌 흙도, 돌아나는 한 포기 풀도, 조그마한 산에 있으니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선진외국의 것보다 좀 뒤진다해도 우리 가슴속에 깊은 관심과 긍지가 있는한, 배타와 편협이아니고 넓은 수용과 안목을 통해 더 고차적인 발전을 향해 돌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없이는 세계화라는 미명하에 우리의 모든것은 점점 망각되어 후진들에게 뿌리자체가 잊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現在의 주어진 여건속에서 最善을 다하며 굳은 의지와 勇氣를 잃지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大學生活이 좀 민족스럽지 못했더라도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며, 卒業과 동시에 취업이 어렵다해도 그것 또한 큰 문제가 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

금 諸君들이 처한위치에서 어떤 결심을 하고, 그 결심을 社會生活속에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느냐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굳은 의지와 勇氣를 가지고 최선을다해 精進한다면 여러분이 목표하는 바가 實者의 돌과 같이 불가능하지만은 않을것입니다. 卒業生 여러분!

여러분이 그동안 연마한 학문적 깊이를 토대로 人類의 보편적 양심과 정의감을 가지고 보람찬 일터에서 성실하게 努力하고 있을때, 이미 母校를거쳐 7만여 同門이 정치·경제·사회적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을 힘껏 도울 것입니다.

어느곳에 있더라도 東國人의 긍지를 잊지말아 줄것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母校 東國은 민족의 영원한 熾勃로서 이 시대의 양심과 지성을 내포하며 최우의 책임자로서 의연하고 우뚝하게 남아 있을것입니다.

끝으로, 萬里長天을 날으는 大鳳처럼 패기있고 당당한 졸업생 여러분들의 앞날에 부처님의 가호가 충만하길 축원하면서 석별의 감회를 가릅니다.

1988년 2월 26일

우리의 고유한 아름다움. 그것을 고려는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려제이드

대표 박찬대



◆해외지부 확대 재파악을 위한 캠페인

머나먼 타국 땅 美國에서 살아온 지 벌써 8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東友會報를 받아 보며 모교의 발전성과 널리 퍼져 있는 국내 동문들의 소식을 읽을 때 마다 흘러간 학창시절을 회상할 수 있어 바쁜 미국생활속에서도 큰 위트가 되고 합니다.

제가 현재 살고있는 美國 시카고에도 중서부 동문회가 오래전에 결성되어 현재 회원이 60명이 넘으며 매년 망년회, 총장대 판포대회, 하계야유회가 성

海外에서 날아온 東國愛

同窓會 발전을 위한 나의 제언

참리에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변생활속에 동문끼리 자주 만나기에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총동창회를 위시하여 국내외 각 지부동창회가 합상 들어가는 상황은 회보를 통하여 잘

알려지고 있지만 해외에서 살고 있는 저희 동문들은 상호 연락이 너무 힘들고 따라서 같은 썬에 살아도 서로가 모르고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한 가타에 이번 기회에 제가 간곡히 제언하고 싶은 것

거시적 차원에서의 「해외 동창회 연합회」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터.



엄마진 한 동문에게서부터 한 통의 편지가 본 총동창회 사무국으로 날아온 일이 있었다. 그 편지는 미국 시카고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문이 보내온 것이었다.

편지내용엔, 꼭 짜인 생활리듬으로 일관되는 미국이라는 낯설은 사회가 강요하는 외로움 가득한 마음에 항상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있어 기쁘다고 우선 서두를 꺼내고 있었다. 계속되는 내용은 다음과

한편, 본 총동창회의라는 인식이 「나의와 화합의場이 아니라 타민족의 어러지



서 전영섭 신임會長이 이끄는 활기찬 동문회 발전상을 소홀히 한 듯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던 차에 이편지를 받고 더욱 느껴지는 바가 많았다.

해외 10여개 지역에 나가

놓을수 없는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그러기위해선 「우리것은 우리가 찾아서」라는 의식아래 발전하는 동창회의 굳건한 결집을 위한 진정한 의미의 「동참」이라는 선행과제의 해결이 우선되어야 하리라 본다. 그

문은 전 동국인의 지력으로 배가되어 질 것이다.

이에 건주어 생각해 보는데 본회의 참모습은 國內외를 막론한 7만 전 동문이 한 가족으로서 성의있는 관심과 더불어 책임의식도 뒤따르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다.

本人은 전 동국인의 總意가 다져져 우뚝 서는 굳건한 동창회가 될 수있도록 본회가 추진중인 「해외지부동문파악」을 위한 작업에 在外동문들의 뜨거운 협조와 질타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끝으로 한 울타리로 어우러지는 同門간의 우의와 화합을 國內외라는 거시적 차원을 넘어 끈끈한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수행을 담당하는 「낯설지않은 공간」이 바로 총동창회라는 인식을 전 동문들이 함께 가져 주기를 당부하고 싶다.



中 益 炫

<本會 사무국장>

년 매달 본회에서 발행하고있는 우리들의 「남남의 광장」誌 동우회보를 받아보고 느끼는 반가움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내뿐 아니라 海外支部의 소식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記事할애요청을 바라는 당부의 말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본會 사무를 맡고 있는 本人으로서도 무척 고마운 격려의 말씀이 아닐 수 없으며 본會 발전을 위한 나의 책적이 아닌가 생각해보았다. 그렇지 않아도 뉴욕지부에

함께 자리하는 總同窓會

해외에서 활동중인 同門들에게

왕성한 활동력을 심분발취, 東國의 긍지를 자기심어가는 동문들의 활동이 더 가깝게 회보를 통해 알려짐으로써 동문 상호간의 자긍심을 키움과 동시에 해외동문들의 자기양양에도 큰 몫을 하는 길 또한 본회보가 다해야 할 임무중

것은 「在外同門 파악」이다. 물론, 지금도 많은 분야에서 발휘되고 있는 東國人的의 꾸준한 역량은 동국의 자랑거리이다. 하지만, 그 자랑은 「東國의 불꽃」을 發願시킬 자양분으로 하나가 될 때 個人의 동문이 支部의 동문으로 각 지부의 동

쉬어가는 정거장이 아닌 영원한 故郷

각 東友會간의 연계성을 확보해 주고 그들의 활동을 7만 동문들에게 고루 전달토록 그 중개역할을 맡는 곳이 또한 총동창회가 갖는 본領중 하나가 될 것이다.

他大와의 여건상황을 비교해 볼 때 남보다 앞서서 同門들의 전선파악작업 시작을 선행했으며 동창회관 건립의 일환

으로 지금의 본會이전이 이루어지는 등 결코 뒤지지 않을 결연으로 발전의 地판을 열고 있다.

모교의 문을 나선 동문들에게 마음의 고향으로서의 총동창회가 그 내실을 튼튼히 하고자 하는 일련의 노력중 해외 나가 있는 동문들의 파악에 중점을 둔 「해외지부확대

및 해외동문 재파악」사업은 본會 혼자만이 뛰어서 되지 않는 「2인 삼각」과도 같은 어려움이 따르는 사업이다. 참여의식이 결여되고는 진정한 의미의 同門愛란 존재키 어려운사상누각이 아닐까 지적하며 본會가 나아가야 할 미래상에 동문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이 자연스레 이루어지는 「열려있는 창

동문회부의 습득은 영원의 東國培根의 모성으로

알림
해외지부 同門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각지부 임원 개편 및 새회원 명단
▲수필·시·동·자유 투고
<東友會報 편집부>

참여의식이 결여된 진정한의미의 同門愛란 있을수없다

李範俊 동문 교통부 장관에

행정수석 李衍澤 동문



李範俊 동문

李範俊(79학원·국회의원) 동문은 지난 19일 발표된 제 6공화국 組閣에서 교통부장관으로 임명되었다.
육군군수사령관, 해운항만청장, 민정당 중앙집행위원, 국회 농수산위원장등을 역임해왔으며 스스로 일하는 것이 취미라고 말할만큼 모든 일을 집념과 박력으로 처리해나가는 타입으로 아래사람들로부터는 「칭찬한 덕



李衍澤 동문

」으로 호감을 얻고 있다는 평을 듣는다. 본회 상무이사.
한편, 청와대 행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李衍澤(61학번) 동문은 국무총리실에서만 23년간 근무해오 「총리실 터주대간」. 실수에 강하다는 중평을 듣고있으며 매사에 활동적이고 웃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도 매우 적극적이라고.

第一銀 은행장에 피선



宋寶烈 동문

宋寶烈(57경제) 동문은 지난 27일 제일은행 은행장에 선임

되었다.
宋동문은 지난 57년 제일은행에 입사한뒤 저축부장, 상무이사, 상임감사 및 전무이사 등을 역임해왔는데 매사를 깔끔하게 처리하는 원만한 성품의 금융인으로 인정받고 있다.
「만행」으로 불릴 정도로 부하들과 친숙하고 격의없는 대화로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 「제일가는 第一銀行」의 역할을 과시하겠다고 취임포부를 밝히기도. 본회 상무이사.

광운대 초대총장



로 선임, 지난 1일 문교부 승인을 받았다. 광운대학교 종합대학으로 승격됨에 따라 이번 초대총장을 맡게된 백동문은 한국사학자대연합회 중앙이사, 대한아이스킴협회장등을 역임하는 등 다방면에서 활약해왔으며 최근까지 학교법인 광운학원이 사장직을 맡아왔다. 본회이사.

올림픽유치공로 표창



공자 훈·포장식에서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많은 분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한 안동문은 본회 상임이사로서 있으면서 모교와 동창회발전에 소홀함이 없는 열성과 이기

장기근속교원 표창

지난 19일정부가 발표한 정년 명예퇴직 및 의원면직교원중 25년 이상 장기근속교원훈·표창에서 鄭泰熾 모교교수들이 수상했다.
훈·표창 내역은 다음과 같다.
▲鄭泰熾(55불교·모교인철교교수) = 국민훈장 모란장
▲崔峯煥(74대원·모교행정교교수) = 국민훈장 목련장
▲金實性(48불교·동대부교교장) = 국민훈장 석류장

국민은행 이사로



李鍾茂 동문은 국민은행 동우회장을 맡아 동창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기도 한 열성동문으로 같은행에서 최근까지 영업부장을 맡고 있었다.



새마을 지도과장에



俞承植(61·법학) 동문은 지난 17일 서울시 새마을 지도과장으로 영전했다.
俞동문은 그동안 서울시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 동대문구청 도시정비과장, 통일림업준비단 문화담당관, 서울시 소속대 책관과장등을 역임해왔으며 본회이사로서 동창회 발전에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문협」 창설준비



申相星·俞漢根 동문은 유도대 교수·사건위·동문과俞漢根(79국문·문학) 동문은 최근 「한국 스포츠 문학협회」의 창설을 서두르고 있다. 스포츠 문학을 우리문학의 한창로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이번 88올림픽 기간중 우리나라의 스포츠문 학현황을 해외에 소개하고 해외각국작가와의 폭넓은 교류도



진했다.
李동문은 국민은행 동우회장을 맡아 동창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기도 한 열성동문으로 같은행에서 최근까지 영업부장을 맡고 있었다.

추진할 예정으로 있다.

출판기념회 가져



崔炳佑 동문은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자전적 민주쟁기라는 부제가 붙은 「일어서라 부르는 소리」에 의해 출판기념회 정 치에 첫 발을 디딘 이후 격조하는 여사의 현상속에서 보고 느끼고 행동해온 것들을 회고하며 앞으로의 민주화에 앞장 설것을 다짐하고있다. 본회 지도위원.

국민銀 영등포지점장

崔俊鎬 동문은 국민은행 인사에서 영등포지점장으로 영전했다.
최근까지 同관주분부장으로

약을 보이고 있다.

명예文博 학위받아



徐貞允 동문은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서美 캘리포니아주 사우스대로부터 명예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강남구청행정자문위원, 국제라이온스협회 이사를 역임해온 Seo 동문은 현재 총신대 교수로 있으면서 추학양성에도 남다른 정열을 보이고 있다.
본회 상무이사.

학술교류차 대만行

金三龍 동문은 최근 자유중국 정부 초청으로 중국의 문화대학등을 방문, 학술교류차 국제협력방안을 협의하고 귀국했다.

結婚

▲萬順伊(60 정치·협성대이 프대표) 동문 = 지난달 21일강 남태극당에식부에서 3녀 결혼
▲金榮煥(62경제·대우株부사 장) 동문 = 지난 26일 하림각에서 장녀 결혼
▲李贊永 모교교수 = 내달 1 일 오후 2시 여의도 교원공제회관에서 장남 결혼
▲萬鍾植(52경제·태평양개발 株대표) 동문 = 오는 4일 12일 삼성중 한국중학선시상서녀 결혼

教職員人事

▲姜昌淳 = 免교육대학원 교학과장 補정주컴퍼스 총무부장 서리 補공보실장
▲朴秀根 = 免교무처 학과과장 補공보실장
▲金炳敏 = 免총무처 관제과장 補기획조정실 예산조정과장
▲吳福雄 = 免총무부 총무과장 補교무처 학과과장
▲金鍾玉 = 免총무부 총무과장 補교무처 교무과장
▲申日植 = 免기획조정실 예산 조정과장 補학상처 학생과장
▲朴祥鎬 = 免학상부 학생생활 과장서리 補학상처 학생과장 서리
▲白宇鏡 = 免총무부 관제과장 補총무부 총무과장
▲成芝鉉 = 免전자계산원 교학과장 補총무부 관제과장
▲朴東琪 = 免2부대 교학과장 補교육대학원 교학과장
▲張用喆 = 免의대및 병원건립 분부사무장 補2부대 교학과장
▲柳雲雲 = 免학상처 학생생활 과장 補전자계산원 교학과장
▲崔昌善 = 免교무부 교무과장 補의대 병원건립분부사무장
▲朴煥煥 = 免학상처 학생과장 補총무부 총무과장
▲權容範 = 免정주컴퍼스 도서 관료실과서리 補총무부 관제과 장서리
▲孫相吉 = 免학상부 학생생활 과장서리 補교무부교무과장서리
▲金容喆 = 免동대신문사 주간 補학상부 학생과장서리
▲李時雨 = 免한방병원 관리과 장서리 補정주컴퍼스 도서관료 실 과장서리
▲黃永洙 = 免교무처 교무과장 補한방병원 관리과장
▲李根鎬 = 免한방병원 서무과 장 補한방병원 관리과장
▲金漢宗 = 免총무부장 補총무 처 총무과과장
▲申昌俊 = 免공보실장 補총무 처 총무과과장

本회 상무이사로서도 많은 활

動으로 선출되었다.
중문의 분열을 막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위한 同회를 이끌어갈 중책을 맡은 邊동문은 寺院의 자립경제와 함께 사회 행정의 현대화를 이루어야한다 는 것이 평소의 주장.
本회 상무이사로서도 많은 활

최고년 13.05%의 수익률 보장!
CP는 가장 높은 수익을 보장합니다.
금액·1,000만원 이상 만기·90일 이상
최신 투자, 원천 미래
대한투자금융
DAHAN INVESTMENT & FINANCE CORP.
서울명동네거리 투자상담 777-4491
대 대 표 771-06

現代公認仲介士 合同事務所
公認仲介士 金炯敏(75경행)
가장 안전하고 높은수익 土地투자
서울 강남구 신사동 579 광정빌딩 304호
代表 549-8266, 549-8264~7, 546-2882

隨筆 同門 투고 詩

사랑의 꿈

나는 본능적 욕망을 억제하려는 양심이다. 끝으로 본능적 욕망과 양심을 조절하는 자(自我)이다.

보통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법외행위를 한 청소년들은 본능적 욕망과 양심의 심리적 갈등속에서 본능적 욕망이 강하게 작용하였기에 범죄를 감행한 것으로 보여진다. 비록 그들이 잔인한 범죄행위를 하였으나, 그들의 무의식속에는 그래도 이성이나 양심이 남아있으리라고 믿고 싶다.

가정에서의 따뜻한 사랑도, 학교에서 보살핌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들은 사회에서 육체적 쾌락만을 추구하는 향락주의적 풍조를 쉽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에게는 냉정한 제재보다는 사랑의 꿈이 필요하리라.

밤이 가면 새벽이 오고 괴로움을 지나면 기쁨에 다가갈 수 있듯이 현실이 있으면 꿈이 있다. 사람은 언제나 꿈을 먹고 살고 싶은 바램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환상적 미래에다 꿈을 거는지도 모른다.

그 꿈이 설사 허무하게 끝나고 미는 것일지라도 아름다운 것이다. 허무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인 우리가 언제인지는 모르나 반드시 죽어 야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일 것이다. 떠나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면 하늘이 무

실은 괴로운 것이리라. 비록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정신적인 사랑의 이야기는 먼 훗날에도 가슴속에 오래오래 살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삭막한 환경에서 다정한 사회로의 전환을 희망하거나,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말씨나 행동을 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단지 꿈일 뿐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자.

삭막한 현실과는 대조적으로 시인은 꿈과 상상속에서, 연인들은 꿈과 사랑속에서 제자끔 자신의 동우리를 찾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느시인의 꿈과 같은 은유적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자.

『꼬마아가 꽃밭을 걸어가고 있었읍니다. 가다가 넘어져서 울고 있었읍니다. 무릎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읍니다. 자세히 보니 빨간 꽃잎이었읍니다』

이 꼬마아가 피라고 생각한 것은 실은 벌레만 꽃잎인 것과 같이 우리가 식탁한 사회라고 생각한 것이 사실은 다정한 사회일 수도 있다는 모습을 실존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보여주는 사람도 많이 있으리라.

우리가 범죄행위를 하는 청소년들에게 다정하게 대하여 하는 이유는 중국의 철학자인 장자의 나비꿈에 잘 나타나있다.

『전에 장주는 꿈에 나비가

山寺에서

尹錫浩

하얀 눈송이가
梵鐘의 울림따리
춤을 추어요.

삼분 삼분
장삼 위에도 내려와 앉고
여승의 까만 동공도 눈맞추어요.

새벽 예불시간에
스님이 발자국 따라와서
독경소리에 흥겨워
춤을 추어요.

눈물 이슬이름 젖는 기도가
黎明의 창살을 비추일 때
흰희의 빛살로 범치어요.

부처님께 귀의한 새하얀 마음이
은 누리 새하얗게 슬렁이어요.



(62國文·詩人)

보다는, 꿈속에서의 나와 현실에서의 나를 하나로 생각하거나, 너와 나의 구별을 「우리」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풍조를 배무면서 그들은 성장하였다. 누가 그러한 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 범죄행위를 하는 청소년들은 바로 우리들의 자녀이고, 우리가 그들에게 육체적인 쾌락이나 편리함을 추구하는 물질주의적 풍조를 간접적으로 가르쳤기에 그들은 험사리 이기적인 환상에 석공, 맹종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가 잔인한 범죄행위를 했다고 하여 청소년들을 무조건 미워하거나 싫어하여 처벌만을 늘사로 여긴다면 악순환은 반복된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정으로서의 사랑(Philia)과 정신적인 사랑(Eros)이 무엇인가를 이룬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 주지 않으면 그들은 납득하지 않으리라. 이것이 바로 사랑의 꿈을 울라보 현실화시키는 길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본다.

金光永

(66철학·철학박사·의교안보연구원)

청소년들에게 사랑과 꿈을 심어줄수 있는 사회 전설이야말로 기성세대가 이룩해야 할 과제

너지는 아들이 있어도 보내야 하는 것이 순리이리라. 이렇듯 우리 인생은 물이 흘러가듯이 무상할 것이요. 꿈에 비유될 수도 있다.

인생에서 꿈이란 허무하고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꿈을 좇는다. 한 순간의 꿈이 지나가면 또 다른 아름다운 꿈을 꾸길 희망하며...

사랑의 꿈을 꾸는 것은 행복이겠지만 그 사랑의 한계를 알고 이별을 이야기할 때 현

에서 통합한다는 의미일게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청소년들의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자. 그들은 노인에게 측은한 마음에서 자리를 양보하고 있을까? 그들의 대화 내용에 귀를 기울여 보면, 그 가운데 순수성이나 청순함을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는 인간 교육을 도의식한 채 성직만을 높이는데 주력하였고, 동이나 태도를 무시한 채 편리함이냐 경제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데 급급하였던

되었다. 사뿐 사뿐 날아 다녔던 것이 분명히 나비였다. 매우 즐겁고 뜻하는 대로 이루어 졌기에 자신이 정주인 것을 알지 못했다. 조금 뒤에 문득 깨어 보니 분명히 잠주었다. 잠주가 꿈에 나비가 된것인지, 나비가 잠주가 된것인지를 알지못하였다.

會費... 1년에 1만원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同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뜨거운 격려속에 지난 2월 同窓會館 건립의 밑바탕이 될 사무국 이전을 비롯, 컴퓨터 도입으로 사무자동화를 이루는 등 同窓會가 거듭 발전하고 있습니다.

同門여러분께서 내주시는 年會費는 동창회관건립과 후배들을 위한 장학기금등 東國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에 쓰이게 됩니다.

會費납부에 동문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협조를 바랍니다

◇회비내역

- 一般會費... 1만원
- 理事會費... 5만원
- 常務理事... 20만원
- 단체회비... 회원수대로
- 해외동문회비... \$ 20
- 監事... 20만원
- 副會長... 50만원
- 會長... 100만원

◇납부안내

- ①은행지로이음 납부
- ②전화주시면 방문수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本會사 무국(733-3991~3)으로 문의 바랍니다

東國大學校總同窓會 事務局

高麗人蔘 大藥房 製品直賣店

趙昌基 高麗人蔘社

- 販賣品目: 人蔘
- 人蔘茶
- 人蔘濃縮液
- 人蔘正果
- 人蔘製品
- 紅蔘製品
- 人蔘罐頭

대표 趙昌基 (75법학)

서울 중구 소공지하상가 53호
TEL : 755-3184, 778-3900

체신부 通信工事면허업체

卍宇電子通信公社

TEL: 273-4048 (代)

- 각종 通信設備 유지 보수
- 각종 通信機器 제작 및 설치
- 전지식 자동교환기 및 키-폰
- FAX·TELEX, 인타폰, MDF설치
- 컴퓨터 및 SOFTWARE 운영

대표 趙椿煥 (74경영)

중구 을지로 4가 315-1 무광BD 510호

일본 京都佛敎大와 자매결연 兩校간 교수·학생 교류 합의

모교는 지난22일 오후3시 모교총장실에서일본 京都佛敎大學과자매결연을 공식체결했다. 이번 자매결연조인식에는 모교 李智冠총장과 일본 京都佛敎大學의 미즈다니 고요소(水谷幸正)학장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해 양교간의 학술교류협정문을 체결했다. 호혜평등의 정신에 입각해 兩大學의 敎學과 學術研究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자매결연은 양교간의 교환과 교류원, 학생의 상호교환과 학술회의의 교환 개최, 출판물의 교환등을 그내용으로 하고있다. 이날 조인식에서 李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佛敎정신을 전하이념으로 하는 공통점을 가진 양교가 학술교류를 통해 서로의 발전에 큰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체 교수회의 새학기 운영방침 논의

모교「88학년도 전체교수회의」가 지난 23·24일 양일간 李智冠총장을 비롯한 3백50여명의 모교제직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합 도고에서 열렸다. 이번 교수회의에서는 새학기 운영방침을 비롯한 예산편성보고, 각부서별 업무보고등이 논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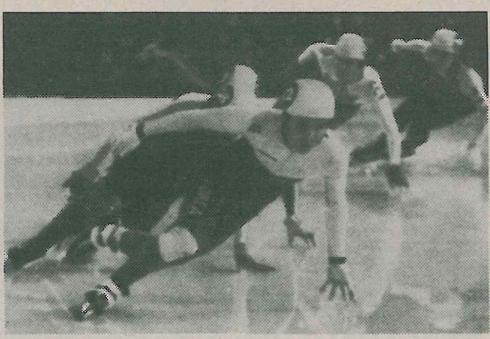
제20대 총선거 내달말경 실시예정

모교 제20대 총학생회 정·부회장선거가 내달29,30일 양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선거를 치루기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서귀원 대총장)가 지난24일 구성되었다.

켈거리에 떨친 東國鬪魂

李準鎬 동문 冬季五輪(冬北) 金메달

모교 빙상부소속 李準鎬(88경제)동문이 지난26일 캐나다 켈거리에서 열린「제15회 동계 올림픽」시범종목인 쇼트트랙스피드스케이팅 남자3천m종목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李동문은 대회13일째인 26일 맥스벨에레나에서 벌어진 남자3천m결승전에서 5분21초63으로 우승, 1천5백m종목의 김기춘선수에게 이어 한국에 두번째 금메달을 안겨줬다.



▲켈거리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3천m 결승전에서 李準鎬동문(맨안)이 선두를 유지하며 결승점을 향해 힘찬 레이스를 펼치고있다.

리라 國校1학년때 스피드스케이팅으로 빙상과 인연을 맺은 李동문은 서울고재학시절 배기태선수와 함께 국내 1, 2위를 다투어온 유망주로 83년에는 나란히 사라에보 세계주니어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에 출전하기도 했다. 그뒤 84년말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이 국내에 보급되자 자신의 적성에 적합하다고 판단, 과감히 전향했다.

신장 175cm, 몸무게 71kg으로 순발력은 정상급이란 평을 듣고있는 李동문의 종전 3천m 최고기록은 86년11월 기록한 5분26초61로 당시 한국최고기록이었다.

올해 모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경영대학원에 진학하는 李동문은 앞으로 지구력이 약한 점을 보완, 내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고 다짐했다.

사이동을 다음과 같이 실시했다. ▲총대신문사주산=林英正 교수 ▲과학관장=閔泰鎬교수 ▲정각원장=李泰敬(선학과) 교수 ▲외국어교육원장=許天澤(영문과)교수 ▲학술부장=金周煥(지교과)교수 ▲기숙사장=吳亨根(불교과)교수 ▲대학원학감=金丙植(화공과)교수

醫科大學 부속병원 건립착수 지난달 26일 부지정지작업 시작

모교 의과대학 및 의대부속병원설립을 위한 제1차 토목공사로 부지정지작업이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되었다. 이어 지난3일에는 모교 兩天부총장을 비롯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함가운데 경주캠퍼스에서 기공식이 있었는데 총대신문사기 4만3천원중 1차로 1만4천4백원의 부지정지작업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 공사는 총 4억3천5백만원을 투입, 오는 4월24일 준공된다. 또한 조영·폐수·토로설치를 위한 제2차 토목공사와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건축공사는 오는 4월말경에 이를 예정이다. 한편 의과대생들의 부족한 실험실습을 해소하기 위한 공사가 지난달 26일부터 총공사비 1천80여만원을 들여 시작되었다.

佛敎로 꽃피운 晚學의 열정



전체수석 졸업자 金敬玉씨

에 심취했음을 따를인데 수석은 뜻밖이었어요. 지난26일 거행된 모교 87학년도 학위수여식에 영점 4·5점만점중 4·37점을 받아 전체수석졸업의 영예를 차지한 金敬玉(불교과·38세)씨는 겸손하게 수석 졸업 소감을 밝혔다. 포항여고를 졸업하고 몇차례 대학입시에서 실패한 뒤 25세에 철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독실한 불교집안의 분위기속에서 불교에 뜻을 두게 되었다는 金씨는 『佛敎야말로 자기를 자기로서 살게 하는 참되고 심오한 종교』

라면서 종교로서 뿐만이아닌 학문으로서의 불교를 접해보고자 33세에 대를 준비, 34세때인 84년에 모교 불교학과에 입학했다는데, 졸업후에도 모교 대학원에 진학해 『불교인식논리학』을 공부할계획이라고. 앞으로 모교는 종합학교의 특성을 살리는것이필요하다고 주장하는 金씨는 현재 사찰이 나중단에서 받고있는 佛敎敎에 관한 억압조치등이 철폐되어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질때 東國은 도약할수 있을것이라고 내다봤다. 『무문관』이라는 책을 통해 웅장하고 열소한 사신의 모습을 뒤흔다 볼 수 있었다는 金씨는 남아있는 후배들에게 『고귀한 4년간의 기회를 의미있게 보내달라』는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補職敎授 인사이동 동대신문주간 林英正교수

모교당국은 지난 1월26일과 2월1일 學室處長에 대한 인사이동을 실시한데 이어 지난 16일자로 東大新聞社주간에 林英正(사교과)교수, 과학관장에 閔泰鎬(화학과)교수를 임명하는 등 보직교수 7명에 대한 인

1987학년도 博士學位 취득자 프로필

- 陸植根(哲學博士)=[義救의 善薩成本流研究]▲37년경남사천생 ▲62년 모교 불교과 ▲71년 모교대학원 ▲모교불교과 교수 ▲東國여경원 여경위원
- 高翔雲(哲學博士)=[韓國近代佛敎思想史研究]▲34년광주생 ▲69년모교불교과 ▲71년 모교대학원 ▲모교교수 ▲한국 불교전서 편찬실장 ▲한국사상사 학위 부회장
- 洪申善(文學博士)=[韓國近代文學理論形成過程에 관한 研究—1894~1919年을 中心으로—]▲44년경기화성생 ▲70년 모교국문과 ▲76년모교대학원 ▲서울예전 문예창작과 전임강사 ▲안동대 조교수 ▲現수원대국문과 조교수
- 朴相東(文學博士)=[韓國近代詩形成에 관한 研究]▲55년진남여수생 79년 한양대국문과 ▲82년 同대학원 ▲한양대강사 ▲모교강사
- 洪禎云(文學博士)=[韓國近代歷史小說 研究—30년대 작품을 中心으로—]▲53년 경남마산생 ▲75년 상명여대국교과 ▲77년 모교대학원
- 崔淳烈(文學博士)=[文學敎育論研究—二理論의 定立을 中心으로—]▲49년 경남양산생 ▲72년 모교국문과 ▲85년 모교대학원 ▲모교 한국문학연구소 연구원 ▲경기에 전임강사 ▲現 모교대 연구원강사
- 俞賢淑(文學博士)=[藻谷 李達의 詩研究]▲54년 전남고흥생 ▲81년 부산여대 국교과 ▲87년 모교대학원 ▲장원대 강사 ▲모교강사
- 文明大(文學博士)=[石窟佛敎彫刻의 研究]▲40년 서울생 ▲65년 경북대역사과 ▲72년 모교대학원 ▲모교불교과 대학 전임강사 ▲문공부 문화재위원 ▲한국미술사교육연구회 대표위원
- 梁武錫(哲學博士)=[Hegel의 학문인식에 관한 연구]▲55년충남대천생 ▲76년 충남대철학과 ▲86년모교대학원 ▲청주대강사 ▲現충남대강사
- 李在都(政治學博士)=[모스크바신학 통치형성과 한반도정치변화에 관한연구]▲40년대구생 ▲64년 연세대정치학과 ▲87년모교대학원 ▲국회사무처비서관 ▲뉴욕주립대 비교발견연구소연구원 ▲現국회사무처 임원조사 4과장
- 尹在豊(행정학박사)=[한국과 미국의 행정교육의 비교연구—행정학교육의 형성과 교과목의 변화를 중심으로—]▲38년전북순창생 ▲62년 중앙대행정과 ▲65년 서울대행정대학원 ▲87년 모교대학원 ▲現서울시립대부교수

- 金令才(행정학박사)=[廣域行政서비스와 지방공무원의 관리도에 관한연구—전주·군산·이리권의 사례를 중심으로—]▲44년 전북부주생 ▲67년 모교 행정과 ▲74년 전북대경영대학원 ▲83년모교행정대학원 ▲86년 모교대학원 ▲현군산대 부교수
- 朱子文(경제학박사)=[韓國에 있어서 필립스곡선의 實證的 研究]▲46년 전남구례생 ▲72년 서울대 사학교육과 ▲82년 연세대 교육대학원 ▲87년 모교대학원 ▲現충북대조교수
- 尹元求(경제학박사)=[朝鮮 初期의 농업구조에 관한 연구—특히 농업經營形態를 中心으로—]▲56년 경기의정부생 ▲81년 모교경제과 ▲84년 모교대학원 ▲강남사회복지대강사
- 文美蘭(경영학박사)=[한국세조업의 부가가치생산성측정에 관한 연구—上場기업을 중심으로—]▲39년 강원춘천생 ▲61년 공군사관학교 ▲69년 고려대 대학원 ▲87년 모교대학원 ▲現목원대부교수
- 權炯熙(문학박사)=[한국「地」에 발달한 Toré에 관한 연구]▲55년 서울생 ▲80년 모교지리교육과 ▲83년 모교대학원 ▲모교강사
- 崔達夏(이화학박사)=[Cd_xMg_{1-x}Fe₂O₄ Ferite System의 Mossbauer효과]▲35년 경북 선산생 ▲61년중앙대물리과 ▲67년 同대학원 ▲87년 모교 대학원 ▲現한림대교수
- 李丁柱(이화학박사)=[액체 금속이온이·주입된 n형 GaAs의 오성성접촉 연구]▲52년 경남진주생 ▲74년 모교 물리학과 ▲79년 모교 대학원 ▲現경상대물리학과 조교수
- 朴在仁(농학박사)=[「너티나무」芽培養, Gallus培養, 細胞培養, 原形質體培養 및 形質轉換에 관한 생물공학작기 초연구]▲51년충북보은생 ▲77년 충북대입학과 ▲84년서울대입학과 ▲87년모교대학원 ▲現산림청 임목육종연구 연구사
- 朴年圭(이화학박사)=[「누에幼蟲」의 행동반응에 관한 研究—色調에 대한反應, 品種間 特性 및 행동반경과 實用形質과의 關係性—]▲41년전북남원생 ▲64년서울시립대잠사학과 ▲80년부산대대학원 ▲84년모교대학원 ▲現말양농장 전문대교수
- 朴書昌(공학박사)=[「混合雜質狀況에서의 追蹤系統的 適應推定」]▲56년전북전주생 ▲80년 모교전자공학과 ▲82년모교대학원 ▲現한국기계연구원 대덕분소 연구원
- 崔秉知(공학박사)=[「高爐슬래그콘크리트의 耐凍害성에 관한 研究」]▲38년 강원 동해생 ▲65년한양대공과 ▲80년모교대학원 ▲판문대교수
- 梁克永(공학박사)=[「氣象條件이 建築工程計劃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研究—韓國 地域別 氣象曲線을 中心으로—」]▲47년전북익산생 ▲71년전북대건공과 ▲77년연세대산업대학원 ▲87년모교대학원 ▲現인광대건축공학과 부교수

東國은 우리學問의 영원한 뿌리

모교 停年退任교수와 함께

◇... 모교에 응답하며 東國인재양성을 위해헌신해온 元...◇
 ◇...義範(인철과), 鄭泰燦(인철과), 李東林(국문과), 崔...◇
 ◇...煥(행정과)교수와 申昌俊공보실장, 金漢宗총무부장...◇
 ◇...이 2월 29일자로 정년퇴임했다. 이들 6명의퇴임자중...◇
 ◇...교수 3명의 퇴임소감을 들어본다. ...◇

진리를 바로보고 실천 하는것이 학문의 궁극적 목표



鄭泰燦 교수

母校에서만 18년간 후진양성에 정열을 쏟아온 鄭泰燦교수가 지난19일 국민훈장 모란장으로 그간의 교육에 쏟았던정성을 재확인받으며 명예로운정년퇴임을 앞두게되었다.

『진리를 바로보고 실천하는

것이 철학의 목표요, 학문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지난 세월 진리자체를 인정하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노력했음뿐입니다.』

그동안의 삶이 곧 자신의퇴임소감을 대신할수있는 용언이라고 밝히는 鄭교수는 전국대학중 母校만의 유일한 학과인인도철학과를 이끌어오며 오랫동안 학교당국과 사회의 인식부족등 많은 고충이 있었음을 토로한다.

대학의 올바른 위상정립에 대해 묻는 질문에『대학이 학문하는 곳인 이상 학문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은 있지만 사회현실에 대해 白眼視하는 태도 또한 진정한 대학인의 자세에서 벗어나는것』임을 역설하면서, 무엇보다 本末이 전도되는 일은 없어야 할것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순탄치만은 못했던 시절을 지

나오면서도 자신의 영역이라 할수있는 철학에 대해서는 남다른 애착을 보이는 鄭교수는『이제 학교를 떠나 좀 더 여유가 생긴다면 그동안 소홀했던 학문에 가일층 전념하고 싶다』며 여날의 계획을 제시하기도 한다.

부단히연구하며 진실을 탐구하는 자세로 정진하길



李東林 교수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 선 듯하다』며 30년의 재직기간을 마감하는 자리에 서서 回想속에 잠기는 李東林 교수.

8·15해방과 6·25를 거친 전후학생시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母校에서 星霜을 함께 해온 李교수는 겪은 시련만큼이나 교훈도 많이 체득했다고 말한다.

母校 발전을 위해서는『부단히 연구하며, 또한 애정을 갖고 지도하는 교수와 신실성을 탐구하는 자세를 갖춘 학생들 그리고 구상과 개혁의 안목을 갖춘 재단像의 정립이 절실하다』고 역설한다.

그동안 母校 학장, 교무처장, 대학원장등을 두루 역임하며 학문이외의 행정분야에서도 그 능력을 발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李교수는 학교에 공헌한 바가 없어 늘부담감을 갖고 있다며 겸손한 미소를짓는다. 『부끄러움과 위움』으로 가득찬 지난날이었다고 自愧하는 李교수는 자신의 모습때문에라도 학생들에게 거는 욕심이 많다고 밝히면서 삶에 있어 『시간』이란 어떤경우에나 미지수로 작용해왔고 이제와서는 그 『시간』이란 허무함을 불러일으킨다며 씩씩해 하기도.

『앞으로는 건강과 전공등의 종합정리에 눈을 돌리고, 인생을 육되지 않게 살아갈 것이다』며 말을 맺는다.

사회의 소금이 되는 인재양성의 학문 분위기 조성해야



崔曉煥 교수

겨울날씨답지 않게 포근하기만 했던 올겨울도 서서히 물러가는 2월의 길목에서 35년이란 짧은 많은 세월을 갖게 된 崔曉煥교수.

『정년퇴임으로 학교를 떠나긴 하지만 앞으로 계속 학문에 매진할 것이므로 교단에 서만 물러날 뿐, 학자로서의 자세는 항상 간직할 것입니다』라며 퇴임의 아쉬움과 함께 문학에의 열정을 털어 놓는다.

스포츠를 좋아해서 평상시 여가를 이용하여 테니스를 즐겨한다는 崔교수는 『건강이 학문에 정진할 수있는 힘을 키워준다』며 장기근속상을 2번이나 수상한 비결을 은근히 내보이기도 했는데, 崔교수는 『학교당국이나 학생들 모두가 학교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이 나라의 민주화는 우리 모두가 노력했을 때에만 거취될수 있는 값진 열매임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한다.

"정성어린 희비에 東國사랑 담겨"

더욱 활발한 참여당부

○...봄을 꿈꾸기에는 아직 설익었고 그렇다고 겨울 속에 남아있기도 조금 어색한 분주한 결산의 달 2월-그림에도 불구하고 본 사무국은 벌써 훈훈한 봄기운에 뿌듯한 표정들로 가득한데...

동문들이 속속 보내주시는 정성어린 희비, 그 값고 뜨거운 東國사랑에 다시금 감사드리며 보다 나은 동창회, 저력의 東國을 이끌어 나아가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오니, 동문여러분, 희비뿐만 아니라 소식도 자주 주시고 더욱 활발한참여도 꼭 부탁드립니다.

모교사랑 영원히

○...『희망에 찬 출렁섬여리분, 이제 전풍깊은 민족의

사학인 모교에서 갈고 닦은지혜와 자비의 東國精神을 바탕으로 사회의 일원으로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해야하는 출발점에 서있읍니다』



그동안 정들었던 학교를 떠나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東國健兒들이 앞으로 모교와 국가발전에 기여하길 바라는 東國家族의 마음은 누구나 같

"알찬 계획으로 새봄맞는 7만동문"

을 것이라고. 모조록 새로 탄생한 同門들의 앞날에 부처님의 가호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春暉이 온누리에...

○...春暉이 온누리에 만연히 그자태를 드러내는 춘삼월을 목전에 두고 누구나의 마음 속에는 각기 자기들의푸른 계획들을 세워두고있을터...

東國당장아래 서로 서로의 가슴을 키우는 우리네에게도 봄은 초레청에 나아가 칠보단강한 여닐곱 새새시도양 벅찬 기대로 한껏 부풀게할 진한 계절로 2월의 분주함을 요구했나보다.

開花를 시샘하는 겨울머슴의 잔기침을 이겨야만 봄을 맞이할 수 있듯이 7만동문 모두가 알찬 계획으로 새봄을 맞이하기 바랍니다.

新刊안내

『목마른 땅』

宋媛熙 著 宋媛熙(55국문·소설가) 동문의 『목마른 땅』이 출간되었다.

제 4회 동포문학상 수상작이기도 한 同. 작품은 6·25년 발로부터 4·19에 이르는 역사의 격동기를 치르며 고뇌하는 지식인의 모습과 시각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나도 한국의 딸』

宋奎奇 著 宋奎奇(56 영문)동문은 『나도 한국의 딸』이라는 자전적 수필을 내놓았다. 『타국에서 한국여인의 긍지를

실고있는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여인들의 숨은 공포와 역할을 알리고자』핵을 파헤치는 宋동문은 현재 미국에 살면서선사부학교를 운영,在美한국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있다. <미래문화사刊>

『사리자여, 사리자여』

鄭泰燦 著 鄭泰燦(55불교·모교교수) 동문은 회교로 읽는 반야심경 『사리자여, 사리자여』를 발간했다.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을 4막으로 나눠 부처님과 관자재보살, 사리불을 주역으로하고 당시 사회각층의 인물이 등장하여 그 대화를 통해 반야심경의 중심사상을 전달하고 있는데 부록으로 반야심경해제, 법이, 헌도반야심경, 헌문반야심경주해를수록했다. <대원정사刊>

現代自動車(株)
HYUNDAI

현대인이 선택하는 정상의 승용차!

"그렌저" 판매개시 2,000CC 2,400CC 3,000CC

판매과장: 柳在善 TEL 274-3103~7 (70동경·ROTC 8기) 야간 914-6584

대우자동차(株)

'87신형 정통 고급승용차 탄생

로얄시리즈(듀크·프린스·살롱·수퍼살롱) 윌드카 프랑시리즈(GSE·GTE·레이서)

TEL 540-4740(직) (야간) 487-7539 판매과장: 崔鉉石 (74년영)

강남구 논현동 88-7 (교래 B/D 1층)

■ 西独 本産 純正 部品 節約 減價

■ 引擎 출력 증가 / 수명 연장

■ 적용 차량 현대·대우 全車種

BOSCH SUPER
Cu-Electrode
Thermo-Elastik

수입원: 洋陽商事 (대표: 沈載錄·65경영) TEL. (02) 213-1392/3107 아파트서비스 244

信一金屬센터(株)

항동판·銅파이프·비철금속 일체

대표이사 金鍾葉 (84경원)

본사: 서울 중구 을지로 3가 251-3 ☎ 266-6662, 265-3258
지점: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55-58 ☎ 924-6662, 924-6363

世進家具工藝店

TEL: 736-7887, 2311

■ 가정용 가구 代表 金文煥 (64 정의)
■ 사무용 가구
■ 혼례용 가구 서울 중로구 교남동 61-2 (서대문-독립문 중간)

생일이면 떠오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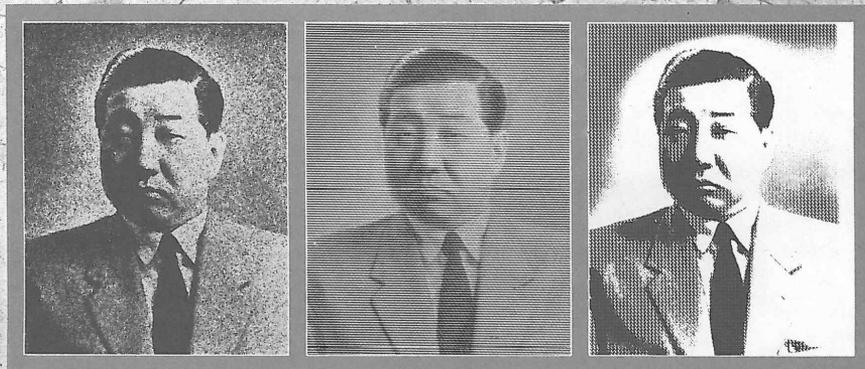
新羅명과

"실속있고 품위있는 선물을 원하십니까?"
소외자 상담실 863-4040

대표이사 홍명우 (70경영)

洪性裕人生劇場

將軍의 아들들



“ 무장독립군으로
일본군을 대파한
백야 김좌진 장군.
그 빛나는 아버지의
위업에 도전하는
주목황제 金斗漢의
끝없는 투쟁의 기록! ”

朝鮮日報 연재소설.
홍성유 인생극장 『將軍의 아들!』
폭발적인 화제 속에 제5,6권 연속 出刊!

홍성유 인생극장 (장군의 아들)은 우리시대의 신화적 인물 金斗漢을 주인공으로 흥미진진하게 펼쳐나가는 사회소설이다. 암울한 현실에 대한 분노와 절망감으로 시종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는 이 소설은 박진감 넘치는 사건 전개, 걸작의 입담, 생생한 인물 묘사를 통해 소설의 참재미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金佐鎭 장군의 아들 金斗漢은 임꺽정의 배짱과 빼앗긴 땅에서 주먹계의 황제로 등극, 日帝의 무리들을 한손에 쥐고 뒤흔들며 민족혼을 불태웠던 情義 넘치는 巨漢으로 필막받는 자의 보호자로, 드러나는 政界의 거물로 격동의 한국 근대사에 우뚝섰던 우리 時代 가장 늠름한 대장부이며 大自由인이었다.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作家가 아심적으로 짜낸 이 작품 속의 특이한 인물들은 기상천외한 행위를 연출하면서 우리를 기막힌 인생무대로 초대한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속도감 있게 전개되는 드라마틱한 사건들은 우리가 걸어온 근대정치·사회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인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일깨우고 있다.

日帝의 무리들을 한 주먹에 쥐고 뒤흔들었던 격동의 시대 풍운아들의 극적인 삶과 죽음! 울분 속의 기행과 폭력, 뜨거운 애정과 의리! 한국 근대사의 생생한 모습 <將軍의 아들!>

野史 에도 正史에도 기록되지 않은 술한 사람 들이 땅을 갈탈한 일본 야쿠자 그 거리를 배회하는 거렁뱅이 집대부들 민족 수난의 암흑기에 상처받은 자들과 함께 하며 자유와 정의의 편에서 눈부시게 활약했던 金斗漢이 비인간화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던지는 긴 감동의 파문!

* 전6권 / 국판 · 각권 300면내외 / 각권 값 3,300원 * 남권판매 * 시점에 있음니다.

재회의 기쁨— 노스웨스트가 운항을 재개합니다.

노스웨스트가 1월부터 한-미간
노선의 운항을 재개하였습니다.
이제 미국의 7대도시로 기신
분들은 지회 노스웨스트
예약사무실로 전화만 주십시오.
노스웨스트는 서울발 뉴욕,
디트로이트, 시카고, 시애틀,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및
호놀룰루행 뿐만 아니라 미국의
200여 도시로 이어지는 편리한
노선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간 승객여러분께 불편을 드린데
대해 심심한 사과를 드리며 한국의
승객여러분을 다시 모시게 되어
무한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노스웨스트로 오십시오.
재회의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약전화: 734-7800, 735-8500

NORTHWEST



LOOK TO US  NORTHWEST AIRLINES